

신라 화랑도와 승려

The Flower Boys (Hwarangdo) and Buddhist Priests of Silla in Early Korea

저자
(Authors) 조범환
Cho Bumhwan

출처
(Source) [서강인문논총 33](#), 2012.04, 179-214(36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34530>

APA Style 조범환 (2012). 신라 화랑도와 승려. 서강인문논총, 33, 179-21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6 13:2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화랑도와 승려

조 범 환*

- I. 머리말
- II. 화랑도와 관련된 기록에 보이는 승려
- III. 승려가 화랑도의 구성원이 된 배경
- IV. 중대 말부터 화랑도에서 승려가 사라진 이유
- V. 신라 화랑도내에서 승려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
- VI.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신라 화랑도와 승려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화랑도내에서 승려의 신분으로 활동한 그들은 '僧侶郎徒'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화랑도내에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화랑도와 승려와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내었다.

우선 화랑도와 관련된 승려들의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기왕의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먼저 화랑도가 만들어진 다음 승려들이 자발적

*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으로 화랑도에 속하였는데 그 이유는 불교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함으로써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고, 그것이 결국은 신라 사회에 불교를 퍼뜨릴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승려들이 낭도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불교의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혹은 일상 생활속에서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렇지만 진평왕대부터는 도리어 화랑들이 주도하여 당시 명망 높은 승려들을 모셔와 낭도들 교육에 힘을 쏟았다. 특히 승려들 가운데서 중국에 유학하였거나 혹은 학문적 지식이 높은 이들을 초빙하였는데, 이는 그 무리를 이끄는 화랑이 다른 무리의 화랑도와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신문왕대 화랑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꾸준히 지속되었다.

효소왕대 화랑도가 새롭게 부활하면서 외형적으로는 화랑도의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승려들도 당연히 화랑도내에서 활동하였다. 그렇지만 중대 말부터 화랑도에서 승려들이 점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더 이상 승려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지식의 전수와 관련하여 승려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國學의 발달과 짝하여 승려들은 화랑도내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 치열한 왕위쟁탈전에 화랑도가 참여하게 되면서 승려들이 그러한 조직속에서 있게 되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주제어 : 화랑도, 승려낭도, 국선, 진흥왕, 왕위쟁탈전, 신지식인

I. 머리말

현재 신라 화랑도와 승려와의 관계에 대한 통설은 이들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즉 화랑도의 무리속에서 승려가 낭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 더 나아가 인재의 선발까지 담당할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그 무리 가운데서 승려들이 하였던 그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僧侶郎徒’라고까지 명명하였다.¹⁾

그런데 이러한 통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화랑도내에 승려가 한 명 이상 꼭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승려가 곧 낭도였던 사례도 보이지만, 죽지의 경우처럼 낭도를 거친 후에 승려가 되었다고 하여 기왕의 통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한 연구도 있다.²⁾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승려낭도로 보아왔던 인물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승려낭도로 활동하였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의문이 도출되었고 더 나아가 그와 관련된 사료에 대한 재검토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즉 화랑도와 관련된 기록에 승려가 보인다고 해서 그 인물을 곧 승려낭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는 지적이다.³⁾ 이렇게 보면, 화랑도와 관련된 기록들 가운데서 승려와 관련되어 있는 그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부터 다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승려들을 화랑도의 구성원이라고 할 때 과연 어떠한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랑도와 관련된 기록 가운데 승려와 연관되어 있는 기록을 전부 다시 검토해 볼 것이다. 과연 그들이 화랑도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지 아니면 낭도로 활동하다가 이후 승려가 되었는데, 그것을 마치 승려낭도로 활동한 것처럼 기록한 것인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1) 金煥泰, 「僧侶郎徒考-花郎道와 佛敎와의 관계 一考察-, 『佛敎學報』 7, 1970이 주목된다. 물론 김영태가 처음으로 이들의 존재를 주목한 것은 아니고 일제시대 일본인 연구자인 三品彰英이 먼저 주목하였다. 그렇지만 ‘僧侶郎徒’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김영태가 처음이다.

2) 김정숙, 「신라 화랑의 생활사 연구」, 『화랑문화의 신연구』, 1995, 472쪽에서 月明師를 예로 들고 있다.

3) 주보돈, 「新羅 花郎徒 研究의 現況과 課題」, 『啓明史學』 8, 1997, 108쪽.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화랑도내에 승려가 존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들이 화랑도의 구성원이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승려의 자발적인 참여였는지 아니면 국가의 의도적인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또는 여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 중대 말부터 시작하여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화랑도 내에서 거의 승려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이는 신라 중대부터 시작된 화랑도의 변화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더듬어 보고자 한다. 물론 이상에서 제시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이미 간단하게 언급된 글도 찾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적지 않은 기록들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다보니 무리한 추측이 적잖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아온 화랑도와 승려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II. 화랑도와 관련된 기록에 보이는 승려

승려가 화랑도 조직에서 낭도로 활동하였던 기록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 만큼 이들 기록에 대한 재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두 사서에서 화랑도와 승려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기록을 찾아 시대순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A-1. 眞智王대에 興輪寺에는 眞慈라는 승려가 있었다. (그는) 恒上 堂主 彌勒像 앞에 나아가 서원을 말하여 말하기를, “원컨대 우리 大聖께서는 화랑으로 화하시어 세상에 출현하셔서 제가 恒上 古

하신 모습을 가까이 뵈고 받들어 시중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한 달 정도 후에 진지왕이 그 소식을 듣고 진자를 불러 그 연유를 묻고 말하기를, “님이 스스로 서울 사람이라고 했다면, 성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왜 성인을 찾아보지 않았소?”라고 하였다. 진자는 왕의 뜻을 받들어 무리를 모아 두루 마을을 다니면서 찾았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화장을 곱게 하고 용모가 수려하였으며 靈妙寺 동북쪽 길가 나무 밑에서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었다. 진자는 그를 보자 놀라 말하기를, “이분이 미륵선화다”고 하였다. 이에 다가가서 묻기를, “님의 집은 어디에 있으며, 성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고 하였다. 낭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未尸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성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이에 그를 가마에 태우고 들어가서 왕에게 뵈었더니, 왕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받들어 국선으로 삼았다. 그의 자제들에 대한 화목과 예의와 風教는 보통과는 달랐다. (그의) 풍류가 세상에 빛난 지 거의 7년이나 되더니 문득 간곳이 없었다(『三國遺事』권3, 塔像 4,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 A-2. 승려 혜숙은 (화랑) 호세랑의 무리 속에 파묻혀 지냈는데, 호세랑이 이미 화랑의 명부(黃券)에서 이름을 면하게 되자 스님도 赤善村 <지금의 안강현에 적곡촌이 있다>에 숨어 지낸 지가 20여 년이 되었다(『三國遺事』 권 4, 義解 제5 二惠同塵)
- A-3. 金欽運은 奈密王의 8세손이다. 아버지는 잡찬 達福이다. 흠운이 어려서 화랑 文努의 문하(文努之門)에서 놀았는데 당시의 무리들이 아무개는 전사하여 이름을 지금까지 남겼다고 말하자 흠운이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며 격동하여 그와 같이 되려고 하니 同門의 승려 轉密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약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하였다(『三國史記』권 47, 김흠운)
- A-4. 天授 3년 壬辰 9월 7일에 효소왕은 大玄 薩滄의 아들 夫禮郎을 받들어 國仙을 삼았다. 낭도가 천 명이었는데, 安常과 친하였다(『三國遺事』 권 3, 塔像 4, 栢栗寺)
- A-5. 그때 月明 스님이 발독을 걸다가 마침 남쪽 길을 가고 있었다. 왕

은 사람을 시켜 그를 불러와 단을 열고 계문을 짓게 하였다. 월명이 (왕께) 아뢰기를, “臣僧은 그저 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었기에 鄉歌만 알 뿐 聲梵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미 인연이 있는 중으로 점지되었으니 비록 향가를 쓰더라도 좋소”라고 하였다(『三國遺事』 권 5, 感通 제7 月明師兜率歌)

- A-6. 왕의 이름은 膺廉이고 나이 18세에 國仙이 되었다. (중략) 낭의 무리중의 우두머리(上首)인 範教師라는 자가 이 소리를 듣고 (낭의) 집에 와서 낭에게 묻기를 (중략) 범교사가 말하기를, “낭께서 만약 아우에게 장가를 가시면 나는 반드시 낭의 면전에서 죽을 것이고, 그 언니에게 장가를 가시면 반드시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경계하십시오”라고 하였다(『三國遺事』 권 2, 四十八景文大王)

이상의 A群의 기록들은 화랑도와 승려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 A-1의 기록부터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진자는 황룡사의 승려로 훌륭한 화랑이 출현하기를 빌었고 결국에는 미시랑을 만나 그를 화랑으로 받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에 주목하여 기왕의 연구에서는 진자가 ‘會徒衆’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주인(곧 國仙)을 잃고 흩어져 있던 徒衆을 불러 모았던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중은 낭도 무리들을 의미하며 진자도 그 무리 가운데 한 명이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 대하여 진자가 미시랑을 만난 이후 과연 승려의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⁵⁾ 즉 진자가 미시랑을 화랑으로 삼은 다음 還俗 하여 그를 모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위의 기록만으로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4) 金煥泰, 앞의 논문, 1970, 260쪽.

5) 김정숙은 “眞慈의 경우 그는 未尸郎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승려였는데, 그가 미시랑을 화랑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도 승려였는지는 의문이다”고 하였다(김정숙, 앞의 논문, 1995, 472쪽).

란 결코 쉽지 않다. 다만 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자가 미시랑을 화랑으로 모신 다음 환속하였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위의 기록만으로 헤아려 볼 때 진자는 미시랑이 화랑에서 물러날 때까지 승려의 신분으로 그를 모신 것으로 헤아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A-2의 혜숙에 대한 기록이 눈에 들어온다.

혜숙은 호세랑을 주축으로 하는 화랑도 무리에서 지내다가 낭이 양명을 하자 그도 물러나 적선촌에서 지냈다고 한다. A-2의 기록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혜숙은 승려의 신분으로 호세랑이 이끄는 화랑도의 무리에서 지내다가 호세랑이 화랑에서 물러나자 혜숙도 그 무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이 기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연구자는 혜숙이 호세랑 아래에 있을 때에는 승려가 아니었으나 그곳에서 물러난 다음 승려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옳지 않다고 보아진다. 적어도 문장상으로 볼 때 혜숙이 승려로서 적선촌에 은거한 것은 화랑도의 무리에서 떠난 이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호세랑 아래에 있었던 기간이 문제일 것인데, 만약 그가 호세랑의 낭도였다고 한다면 호세랑과 같이 양명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화랑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을 때 화랑이 양명한다고 해서 낭도도 같이 양명하는 경우는 쉽사리 찾아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혜숙은 호세랑의 일반 평민 낭도이기보다는 적어도 승려의 신분으로서 호세랑 아래에서 활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결국 혜숙의 경우 승려로서 화랑도의 무리에서 활동하다가 호세랑이 양명하

6) 김정숙은 “惠宿의 기록에서 화랑집단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 빠져 나오고 나서, 자신은 20년 동안 은거했다고 한다. 이 때도 스님이었을까? 아니면 승려낭도로 있다가居士가 되었는가?”라고 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김정숙, 위의 논문, 1995, 472쪽).

자 그도 그 무리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승려낭도는 화랑이 특별히 모셔온 인물이었기 때문에 화랑의 양명과 더불어 승려도 같이 양명하였다고 하는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다.⁷⁾

이렇게 보면 화랑도 내에 승려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와 관련하여 A-3의 기록을 다시 눈여겨보자. 승려 전밀은 김흠운과 같이 문노의 문에서 활동하였다. 문노의 문(文努之門)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곧 문노의 문하라는 의미는 아니다.⁸⁾ 즉 문노의 화랑도에서 활동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문노를 추종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화랑도의 무리로 볼 수 있다.⁹⁾ 다시 말해서 문노는 이미 죽었으나 그의 뜻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 스스로가 문노의 뜻을 따르는 무리라고 표방한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실은 ‘동문의 승려’라는 표현을 통하여 볼 때 두 사람이 문노의 문에서 같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동문이라고 한 것은 문노의 뜻을 추종하는 사람들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원문에도 ‘花郎文努之門’이라고 하였으므로 화랑도의 구성원 가운데 승려가 있었음을 더욱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¹⁰⁾

7) 曹凡煥, 「新羅 中古期 郎徒와 花郎」, 『韓國古代史研究』 52, 2008, 420쪽.

8) 이종욱, 『화랑』, 휴머니스트, 2003, 192쪽.

9) 이종욱, 위의 책, 2003, 192쪽. 그리고 김흠운이 문노의 문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문노는 죽은 이후였다.

10) 그런데 주보돈은 “문노의 낭도 출신이었던 전밀이 후일 승려가 된 데서 同門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승려가 된 후 다시 화랑도에 배속되어 그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화랑도와 관련되는 몇몇 승려들의 경우 낭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혼동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하였다(주보돈, 앞의 논문, 1997, 111쪽의 주 74) 참조).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숨어 있다. 즉 만약 전밀이 승려가 아닌 낭도였다고 할 때 분명 문노의 문하에도 승려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낭도로 활동하던 인물이 후일 승려가 되어 특정한 화랑도에 배속되었다고 하면 그도 특정한 화랑의 문하에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화랑인 누구의 동문이라고 알려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노의 동문이라고 하였을 때 적어도

A-4의 기록은 효소왕때의 일로 화랑인 부레랑이 금란에 출유하였다가 적적에게 잡혀가자 안상만이 홀로 그를 뒤쫓아 갔다고 한다. 안상이 부레랑을 뒤쫓은 이유는 그가 부레랑과 매우 친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두 사람의 친소 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안상이 부레랑을 모시는 동안 승려의 신분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돌아온 다음 국왕이 상을 베풀 때 안상을 대통으로 삼았다고 한 것에서 그가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¹¹⁾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와 달리 안상은 부레랑과 함께 돌아온 뒤 나중에 스님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¹²⁾ 이 기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안상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상일 것이다. 효소왕이 그를 대통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는 일국의 비구를 통할하는 승관으로 매우 높은 위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승려가 아닌 세속인을 대통에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가 없다. 적어도 안상이 승려였기 때문에 효소왕은 그를 대통에 임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 기록에서도 안상이 승려로서 부레랑의 휘하에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A-1·2·3·4의 기록을 통하여 보았을 때 화랑도의 무리속에 승려가 속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기되었던 의문 즉 화랑도내에 승려가 낭도로 활동하였는가 하는 의문은 대략 해결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다음에 거론되는 기록들은 앞서 살펴본 그것들과 달리 승려가 화랑도 무리에서 활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A-5의 기록은 향가를 잘 하는 승려로 알려진 월명사에 대한 것이

전밀은 승려의 신분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씨의 지적대로 한다면 적어도 '동문이었던' 정도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다.

11) 金煥泰, 앞의 논문, 1970, 261쪽.

12) 김정숙, 앞의 논문, 1995, 472~473쪽.

다. 지금까지 그를 승려낭도로 보아 왔는데, 그 근거는 “臣僧은 그저 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었기에 鄉歌만 알 뿐 聲梵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閑聲梵)”라고 한 것 때문이다.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어서라고 한 것과 성범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그를 승려낭도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¹³⁾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 ‘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월명의 승려낭도 여부를 새롭게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월명사가 경덕왕을 만났을 때 그는 화랑도에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화랑도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¹⁴⁾ 또한 성범에 능하지 못하다고 왕에게 아뢰는 것도 결국은 이제 갓 화랑의 무리에서 벗어나 승려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해석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월명은 사천왕사에 살면서 피리를 잘 불었고 달이 그로 인해 걸음을 멈추었기 때문에 유명해 졌다고 한다. 특히 그가 사천왕사에 주석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그는 이미 이름난 승려였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신라 중대의 사천왕사는 성전사원의 하나로 왕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러한 곳이었다.¹⁵⁾ 따라서 그가 그곳에 머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불교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는 당시 왕실에도 잘 알려져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13) 三品彰英은 “월명사는 증으로 범경조차 제대로 못하지만, 오직 화랑의 무리로서 향가를 잘 했으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월명사가 승려의 신분으로 화랑도의 무리속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 1947, 98쪽).

14) 김정수, 위의 논문, 1995, 472쪽.

15) 蔡尙植,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1984, 99쪽에는 성전사원의 설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계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또한 李泳鎬,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4, 1993, 274~283쪽에서는 불교 통제의 증추적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하늘에 나타난 변괴를 해결하기 위한 경덕왕과의 첫 만남에서 왕이 그를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그는 필시 화랑의 무리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려가 되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¹⁶⁾ 결국 그는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었을 때 배운 것이 결국 향가였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승려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에는 익숙치 않았던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면, 월명사와 화랑도와 관련된 기록은 그가 승려낭도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제까지 월명사를 승려낭도로 이해하게 한 중요한 근거는 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렇다고 해서 신라 중대말에 이르러 화랑도의 무리속에 승려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월명사가 승려가 되기 이전에 화랑도에 있으면서 향가를 배운 것으로 보아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고 향가를 가르쳐 준 사람이 승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하지만 경덕왕대는 이미 화랑도가 만들어진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승려가 그들의 무리속에 속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경덕왕대에는 화랑도내에서 승려의 위상이나 혹은 그들의 존재에 대하여 어떠한 변화를 감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음의 A-6의 기록이다.

A-6의 기록은 잘 알려진 것과 같이 화랑인 응렴과 범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응렴이 이끄는 화랑도의 무리에서 활동한 승려가 바로 범

16) 정운용은 “승려낭도가 화랑집단에서 유일한 성인으로서 국선을 보좌하는 존재였다면, 국왕이 자기가 임명한 국선의 보좌격인 승려낭도 월명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고 하였다(정운용, 『新羅 花郎制 成立의 政治史的 意義』, 『화랑문화의 신 연구』, 1995, 142쪽). 씨의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월명사는 경덕왕을 만났을 때 승려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더욱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일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이는 『삼국사기』에서 그가 흥륜사의 승려라고 하는 기록 때문에 더욱 그러한 생각에 이르르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徒之上首’라고 한 기록을 통해서도 승려낭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연구자는 ‘상수’라고 하는 것만으로 과연 그를 승려낭도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¹⁷⁾과, 상수라고 했을 때 문자 그대로 무리의 대표¹⁸⁾일 수도 있어 많은 낭도들 가운데서 제일 으뜸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삼국유사』의 기록(A-6)은 제시하였으므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B. 왕이 임해전에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족 응림이 15세의 나이로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중략) 왕이 듣고서 잠자코 있다고 왕비에게 귀엣말로 말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을 보아 왔지만 응림 같은 사람은 없었다”하고는 딸을 그의 아내로 삼게 할 마음을 가지게 되어 응림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중략) 그러나 여전히 주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흥륜사 승려에게 물으니 승려가 말하였다. “언니에게 장가들면 유익한 것이 세 가지 있고, 동생에게 장가들면 반대로 손해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三國史記』 권 11, 憲安王 4년 9월)

위의 기록을 보면 현안왕이 김응림을 사위로 삼고자 하여 두 딸 가운데 한 명을 취하라고 하였는데, 김응림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아 흥륜사 승려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왕의 둘째 딸보다는 첫째 딸

17) 김정수, 앞의 논문, 1995, 473쪽.

1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1권, 1999, 273쪽. 물론 사원의 수좌라는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낭도 가운데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 혼인을 할 것과 더불어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알려 주었다.

이렇게 보면 두 사서에서 응림의 혼인에 대한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 다만 응림이 현안왕의 딸 가운데 누구와 혼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자의 기록(A-6의 기록)에서는 범교사가 화랑인 응림에게 거의 강압적으로 현안왕의 둘째딸에게 장가를 들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후자의 기록에서는 김응림이 흥륜사의 승려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자의 기록(A-6)을 그대로 따르면 범교사는 당연히 낭도들 가운데서 제일 으뜸가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범교사라고 이름한 것으로 보아 승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후자의 B의 기록을 보면, 김응림이 혼인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자 흥륜사 승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결국 두 사서는 각기 기록을 달리 하는 계통의 사료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적어도 후자의 기록이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되며 전자의 기록에는 설화적인 내용이 더 많이 첨가된 것으로 보아진다.¹⁹⁾

또한 상수인 범교사가 승려였다고 한다면 과연 김응림에게 ‘면전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승려 신분으로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A-6의 기록에 보이는 상수를 승려로 단정짓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19) Vladimir Tikhnov, 「景文王의 儒·佛·仙 融和政策」, 『아시아문화』 12, 1996에서 두 기록에 대하여 자세하게 비교 검토하고 있다. 씨의 견해는 김부식이 불교에의 지나친 의존을 경계했기 때문에 응림의 고사에 관한 원자료를 상당히 수정·삭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Vladimir Tikhnov, 같은 논문, 1996, 51쪽).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경문왕과 관련된 『삼국유사』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설화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즉 경문왕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갑자기 커졌다고 하는 것이나 잠을 잘 때는 뱀이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기사가 바로 그러한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기록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증이 타당하다면, 응림이 화랑이 되어 무리를 이끌었을 때는 승려가 그 무리와 함께 활동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²⁰⁾ 경덕왕대에도 그러하였듯이 이 때에 이르러서는 화랑도 내에서 승려의 활동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신라 중대 말부터 화랑도의 무리에서 승려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본고 제4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승려낭도에 대하여 기왕의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만 사료 A-1·2·3·4의 기록에서 보면 화랑도가 만들어진 다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무리속에서 승려가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그러한 화랑도의 모습은 대략 신라 중대 중반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에는 기왕의 연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III. 승려가 화랑도의 구성원이 된 배경

앞 장에서 화랑도가 생겨난 이후 승려도 그 무리속에 한 명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입증하였다. 물론 신라 중대말 이후에는 그 무리속에 속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적하였지만, 여기서는 신라 중고기를 중심으로 하여 논지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20) 전기웅의 경우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는 화랑도의 활동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낭도인 범교사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지적하고 있다(전기웅, 「新羅下代の 花郎勢力」, 『新羅文化』 10·11합집, 1994). 사실 필자도 「新羅 中古期 郎徒와 花郎」, 『韓國古代史研究』 52, 2008, 419쪽에서 범교사를 화랑 응림 아래에 있던 승려 낭도로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왕의 견해를 수정하고자 한다.

언제부터 그리고 어떠한 연유로 해서 승려가 화랑도의 무리 속에서 활동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화랑도의 창설과 같은 해인 진흥왕 5년(544) 바로 그 해에 승려들의 출가를 허용하였고, 양자가 같은 해에 행해졌다는 것은 승려들을 화랑도 조직에 배속하려 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²¹⁾ 물론 그러하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화랑도가 만들어진 시점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러한 논리는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화랑도를 반관반민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화랑도가 만들어진 시점이 진흥왕 5년이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주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화랑도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현재 대체로 진흥왕 초반기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것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진흥왕을 대신하여 지소태후가 섭정을 하면서 화랑도를 제정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적어도 화랑도는 진흥왕이 즉위한 직후 바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진흥왕은 법흥왕을 이어 540년에 즉위하였는데 이 해에 지소태후에 의해 화랑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해도 무리한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된다.²²⁾

이제 화랑도가 만들어진 시점을 밝혔으므로 화랑도가 만들어지자마자

21) 후보론은 화랑도의 제정 목적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인재선발이라고 하는 점에 착목하여 승려들이 그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고 나아가 인재의 천거까지 담당했다고 하였다. 씨의 이러한 견해는 국가가 승려를 매개로 하여 화랑도에 대한 일정한 의도를 관철시켜 나갔다고 하는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는 그가 화랑도를 半官半民의 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22) 최근 이기동은 화랑도를 진흥왕의 모인 지소태후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보았다(李基東, 「新羅 花郎徒 연구의 現段階」,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일조각, 1994; 『新羅社會史研究』, 일조각, 1997, 236쪽). 씨의 이러한 견해는 필사본 『花郎世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화랑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깊이 관심을 가져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곧바로 승려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속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흥왕 5년(544)에 승려로 출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승려가 화랑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544년 이전에는 화랑도의 무리속에서 승려를 찾아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화랑도의 무리가 일시에 여럿 존재하였다고 하는데, 모든 화랑도의 무리속에 승려도 낭도가 되어 화랑도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든다. 하지만 진지왕대에는 그러한 기록이 보이고 있으므로 적어도 진지왕을 전후한 시기에 화랑도의 무리들 속에서 승려들이 비로소 활동하였을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²³⁾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나 계기로 해서 승려가 화랑도에 속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랑과 승려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알려주고 있는 미시랑과 승려 진자의 기록부터 검토해 보자. A-1의 기록을 보면, 흥륜사의 승려인 진자는 훌륭한 화랑이 나타나게 해 달라고 미륵전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 화랑을 찾아다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진지왕의 도움을 받아 미시랑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미시랑을 국선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진지왕대 무렵에는 승려가 화랑도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진자는 승려로서 미시랑을 만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보아오면, 화랑도의 무리속에 승려가 활동하게 된 것은 진지

23) 화랑도내에 승려들이 언제부터 활동하였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알려주는 기록이 없다. 다만 기왕의 연구에서는 법흥왕대 불교가 공인되고 이후 진흥왕대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을 들어 진흥왕대부터 화랑도에 승려가 활동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적어도 진지왕의 즉위를 전후한 시기로 보는 것이 보다 온당하리라 생각된다.

왕을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A-1의 기록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승려의 입장에서 화랑을 절실하게 찾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는 승려와 화랑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승려가 화랑이나 화랑도에 대하여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이다. 진자가 화랑을 찾기 위하여 매우 노력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화랑도에 대하여 승려의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화랑도가 만들어지자 곧바로 승려가 화랑도의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것도 화랑의 요구보다는 도리어 승려의 입장에서 화랑을 찾았으며 화랑도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진자는 무엇 때문에 훌륭한 화랑을 만나고자 하였으며 미시랑이 나타나자 그를 모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을 알아보면 승려와 화랑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진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화랑도가 만들어진 이후 약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승려들 가운데서는 화랑도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승려가 화랑도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 불교의 교리와 의미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법흥왕에 의해 불교가 공인되고 진흥왕대에는 승려가 되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불교 그 자체가 민간에까지 널리 퍼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이다. 당시 불교는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민간에서는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신라의 경우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아직도 재래의 신앙을 그대로 신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승려들은 불교를 일반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런 가운데 무리를 지어 활동하던 화랑도를 주목하고 그 구성원이 되어 그 속에서 부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²⁴⁾

포교 활동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모임에서 함께 행동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승려 진자는 의도적으로 화랑도에 접근하게 되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진자가 미륵전에 나아가 화랑으로 출현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보면 당시 화랑도의 정신적 성향도 불교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 아닐까고 생각되는 것이다.²⁵⁾ 또한 그가 미륵상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제가 항상 가까이 모셔서 모든 것을 보살펴 받들겠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화랑도에 불교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그가 미시랑을 만나는 과정 또한 고통스럽기도 하였는데, 진자가 왕의 뜻을 받들어 무리를 모아 두루 마을을 찾아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진자와 함께 한 무리는 국선을 잃고 흩어져 있는 낭도의 무리²⁶⁾가 아니라 진자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진자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으로 진지왕의 도움을 받아 미시랑을 화랑으로 모시게 된 것은 결국

24) 정운용은 “새로이 신라 사회의 주도적 사상으로 대두되는 불교가 현세이익적 무교 사상을 갖는 일반인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彌勒下生經』에 의한 미륵사상의 관념적 형태로 화랑의 의미에 변화를 주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화랑집단 안에 승려당도가 존재하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한 일인 것이다.”고하였다(정운용, 앞의 논문, 1995, 141쪽).

25) 현재 화랑도를 도교교단으로 이해하는 연구자도 있다(金台植, 「方士로서의 김유신-도교교단으로서의 화랑 탐구를 곁하여-」, 『新羅史學報』 11, 2007 참조). 씨의 이러한 견해는 화랑도와 도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26) 金煥泰, 앞의 논문, 1970, 260쪽.

그가 추구하는 바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화랑도에 들어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보면 진자가 화랑도의 일원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낸 그는 화랑도를 통해 미륵신앙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물론 화랑도의 무리들이 승려와 더불어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이나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지 곧바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승려가 같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진다. A-1의 기록을 보면, 미시랑이 그의 자제들에 대한 화목과 예의와 風教는 보통과는 달랐다고 한 것을 통해 화랑도의 무리내에서 진자의 역할이 컸고 나아가 진자의 뜻이 서서히 퍼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 승려 스스로가 먼저 화랑도의 무리속으로 들어갔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진지왕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승려가 화랑도의 무리속에 들어가고자 노력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해결을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C. 貴山은 사랑부 사람이다. 아버지는 아간 武殷이다. 귀산이 어렸을 적에 같은 부의 사람 籌項과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학문이 먼저 있고 덕이 높은 사람과 더불어 놀기로 기약하였으니,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수양하지 않으면 아마 치욕을 자초할지 모르겠다. 어찌 어진이에게 나아가서 도를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때 圓光法師가 수 나라에 들어가 유학하고 돌아와서 가실사에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높이 예우하였다. 귀산 등이 그 문에 나아가 옷자락을 걸어 잡고 말하기를 “저희들 세속 선비는 몽매하여 아는 바가 없사오니 원컨대 한 말씀을 주셔서 종신토록 지킬 교훈을 삼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법사가 말하였다. “佛戒에는 보살계가 있는데 그 종목이 열 가지이다. (하략) 『三國史記』

권 45, 貴山)

위의 기록은 귀산과 추항이 수나라에서 귀국한 원광법사를 찾아가 종신토록 지켜야 할 계를 묻고 있는 유명한 장면이다. 두 사람이 화랑이나 혹은 낭도였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시 청년들의 대표적인 소속 단체가 화랑도였다고 할 때 두 사람도 화랑도와 떼어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적어도 진평왕대에 이르러서는 화랑이나 화랑도의 무리가 원광과 같은 특정한 스님을 찾아가 그들 무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를 바랐다고 해석해도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원광의 경우 중국의 수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그곳의 서율로 가서 지냈으며 중국에서의 명성이 신라에 전해졌다.²⁷⁾ 그는 새로운 세상에서 공부하며 배운 다음 귀국하였기 때문에 당시 누구보다도 선진적인 지식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진평왕대에 이르러서는 진지왕대와 달리 화랑이 이름난 승려들을 찾아가서 그를 모셔온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진평왕대에 이르러서는 화랑도의 무리가 여럿 존재하였던 사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또한 여러 화랑도의 무리가 존재하였던 만큼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화랑이 어떤 승려를 모셔오느냐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화랑도 무리의 특징이 부각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더 나아가 그것은 곧 그 화랑도의 변성과도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화랑도 단체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운용하는 화랑도가 나름대로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당대의 이름난 승려를 모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향가를 잘 짓거나 혹은 한문에 대한 해박한 능력을 지녔거나

27) 李基白, 「圓光과 그의 思想」, 『文化批評』3, 1969: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110쪽.

또한 뛰어난 의술을 가진 그런 승려가 무엇보다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승려를 모시는 것이 화랑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그 화랑도의 특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화랑도와 경쟁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이다. 결국 화랑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에는 승려가 화랑도를 찾아갔지만 진평왕대에 이르러서는 화랑이 특정한 승려를 모시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랑도의 숫자가 많아진 것에서도 연유하는 것이지만 특정한 승려를 화랑도의 구성원으로 삼았을 때 여러 가지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증이 타당하다면, 적어도 진평왕대에는 화랑도의 무리에서 활동하던 승려는 일반 낭도와 똑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음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선 연구에서 승려가 이미 성년이라고 밝혀져 있음을 염두에 두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승려낭도라고 하는 표현에는 승려도 일반 낭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점이다. 사실 낭도의 경우 진골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낭도의 나이도 15세 이상 20세 전후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화랑도내에서 승려에 대한 대우는 일반 낭도에 대한 대우와 매우 달랐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하나의 화랑도 내에 승려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있었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승려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혹은 法臘에 따른 대우가 달랐음은 충분히 예상된다. 또한 그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화랑도가 만들어진 이후 얼마지 않아 승려가 화랑도의 무리를 찾아가 그 무리속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진평왕대에 이르게 되면 도리어 화랑이 유능한 승려를 모셔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여러 화랑도의 무리가 존재한 만큼 당시 위상이 높은 승려

를 모셔옴으로써 각 화랑도의 특색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사료된다.

IV. 중대 말부터 화랑도 내에서 승려가 사라진 이유

신라 중고기 화랑도가 만들어 진 이후 그 무리들 속에 승려가 있었음은 앞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면 승려낭도들이 화랑도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였을까 하는 것인데,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대 말부터 화랑도 내에서 승려들의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에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화랑도 내에서 승려의 역할이 무엇이였을까 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제시대 일본인 연구자인 三品彰英은 화랑도 내에서 승려의 역할을 “화랑의 呪歌를 짓고, 집회가 신앙하는 부처를 받들고, 때로는 교훈과 지도를 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언급하였다.²⁸⁾ 이후 국내 학계에서는 미지나의 이러한 지적을 엄두에 두고 국선을 시봉하고 보좌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랑도의 구성원인 승려는 하나 하나의 도중을 관찰하여 그들의 선악과 기량 같은 인물의 됃됨이를 유의하여 지켜보았다가 그들의 개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²⁹⁾ 물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료는 보이지 않지만 화랑도 무리속에서 승려의 나이가 화랑이나 낭도들에 비하여 많았다고 하는 점을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기저에는 적어도 국가에서 승려낭도의

28) 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 三省堂, 1943, 267쪽.

29) 金煥泰, 앞의 논문, 1970, 266~267쪽.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든 신라 중고기에는 화랑도내에서 승려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화랑도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효소왕대에 이르러 갑자기 부레랑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³⁰⁾ 이 때에는 승려인 안상이 그 무리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신라 중대에 들어서서도 새롭게 부활된 화랑도 내에서 승려가 활동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안상의 경우도 신라 중고기의 승려들이 한 역할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경덕왕대에 해당하는 A-5의 기록부터는 승려가 화랑도내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러한 일이 경덕왕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덕왕 무렵부터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화랑도가 인재 선발의 기능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사실일 것이다. 신문왕대 국학의 설치로 말미암아 신라의 젊은이들이 화랑도의 무리에서 활동하기보다는 국학에서 공부하고 그것을 통하여 관리로 진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³¹⁾ 이는 국학이 화랑도의 인재선발 기능을 대행하면서 일어난 일로 보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승려가 화랑도 내에서 낭도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위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전에는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가진 지식층이었으나 통일 신라가 되면서 중국의 문물을 왕경인들이 더 빠르게 접하게 되자 승려들은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최치원이 찬술한 승복사 비문을 보면, 김응림이 玉麈에서 이름을 날렸

30) 『三國遺事』 권 3, 塔像 4, 栢栗寺

31) 李基東, 「花郎像」의 변천에 관한 覺書, 『新羅文化』 5, 1988 ; 『新羅社會史研究』, 일조각, 1997, 296쪽에서 국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화랑도에 영향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옥록이란 국학의 교수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²⁾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응림은 유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문도들에게도 그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승려를 대체하는 지식인이 화랑도에 있었고 더 나아가 화랑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화랑도 내에서 승려가 점차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승려의 존재를 불교라는 측면에서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지는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화랑도 내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거의 필요 없어졌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록도 화랑도 내에서 승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C. 용천주도독 金憲昌은 그 아버지 (金)周元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세워 慶雲 원년이라 했다. (중략) 드디어 장수 여덟 명을 선정하여 서울의 팔방을 지키게 한 후에 군사를 출동시켰는데, 일길찬 張雄은 먼저 떠나고 잡찬 衛恭과 파진찬 悌凌이 뒤따랐으며, 이찬 均貞, 잡찬 雄元, 대아찬 祐徵 등은 三軍을 관장하여 가서 쳤고, 각간 兪公과 잡찬 允膺은 蚊火 關門을 지켰다. 明基와 安樂 두 화랑은 각각 종군할 것을 청하여 명기는 무리들과 함께 黃山으로 나아가고 안락은 施彌知鎭으로 나아갔다(『三國史記』권 10, 憲德王 14년 3월)

위의 기록을 보면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압을 위해 중앙에서 군대를 동원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화랑인 명기와 안락이 종군하기를 청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이에 왕이 허락하자

32) 李基東, 앞의 책, 1997, 297쪽 참조.

그들은 무리를 이끌고 황산과 시미지진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무리들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그들 휘하의 낭도들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는 중고시대와 달리 화랑도의 성격이 많이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시대의 화랑도는 중고시대의 화랑도와는 달리 귀족들의 사병 소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시대의 귀족들 대다수가 사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화랑도가 이들과 연결되어 무장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효종왕의 기록을 통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³³⁾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신라 하대에 승려들이 화랑도 내에서 활동하였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화랑도가 아니라 자과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단체로 변질된 만큼 승려들도 그러한 단체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V. 신라 화랑도내에서 승려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

화랑도와 승려와의 관계는 중고기에 아주 밀접하였고 신라 중대말에 이르러서부터는 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시간적인 변화와 더불어 화랑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과정에서 승려들도 더 이상 화랑도와 함께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사정이 그와 같았다고 하더라도 신라 중고기 화랑도의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승려의 역할이 무엇이며

33) 曹凡煥, 「新羅末 花郎勢力과 王位繼承-(金)孝宗과 金傅의 활동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57, 1999, 30~32쪽 참조.

그들이 그 무리에서 어떤 기능을 하였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진지왕대에 화랑이 그토록 승려를 모시고자 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앞선 연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화랑도의 제정 목적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인재선발이라고 하는 점에 착목하여 승려들이 그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고³⁴⁾ 나아가 인재의 천거까지 담당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³⁵⁾ 이와 같은 견해는 국가가 승려를 매개로 하여 화랑도에 대한 일정한 의도를 관철시켜 나갔다고 하는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는 화랑도를 반관반민적 단체로 규정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화랑도가 반관반민적인 단체의 성격을 가진 조직체가 아닌 이상 이상과 같은 해석이 과연 타당할까 하는 것이다. 화랑도가 국가의 조직아래 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조정 화주이다.³⁶⁾ 그런데 비록 화주가 있어 화랑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는 국가의 특정한 기구에 소속된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음은 이미 밝혀져 있다.³⁷⁾ 따라서 화랑도는 이종욱의 지적과 같이 이해집단의 특성³⁸⁾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국가의 개입이 거의 없었다고

34) 이를테면 향가를 지어 가락을 교육하기도 하고 문자교육, 불교의 경전, 병법이나 전술, 그리고 의식을 주관하며, 그밖에 새로운 선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朱甫暉, 앞의 논문, 1997, 108~109쪽). 그러나 승려가 병법이나 전술까지 교육하였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

35) 朱甫暉, 위의 논문, 1997, 109쪽.

36) 주보돈, 위의 논문, 1997, 110쪽.

37) 김태식, 「『三國遺事』竹旨郎條 달구축을 통한 新羅 花郎과 그 花主」, 『忠北史學』 21, 2008, 69~70쪽 참조.

38) 李鍾旭, 「新羅 中古時代의 花郎徒」, 『省谷論叢』 27-4, 1996, 613쪽.

하는 점이다.³⁹⁾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화랑도와 승려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앞서도 보았지만 화랑도가 만들어진 처음에는 그 무리속에서 승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승려 스스로 화랑도의 일원이 되었고 그 목적은 불교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점차 화랑도 집단이 늘어나고 매 집단마다 특징적인 차이를 노출하면서 당대의 유명한 승려들을 모셔오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제 승려들이 화랑도의 구성원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였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와 관련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승려 가운데는 일반민에서부터 진골 신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출신들이 있었다고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승려의 출신 신분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그들이 불경을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낭도의 교육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물론 낮은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출가하여 불경을 익히게 되면 문자를 아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화랑도의 교육을 담당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화랑도의 구성원이 되는 승려는 과연 어떠한 신분의 소유자였을까 하는 점이다. 출가를 했다고 해서 신라 사회에서 모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의 문제를 돌려 놓고는 설명이 곤란하다.

39) 김충렬은 화랑도는 국가적 운동이면서도 사조직으로서 종적·횡적 연계가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화랑도가 국가적 운동의 주역이었음에도 국가가 이를 직접 통할장악하여 조직하고 규제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사사로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임했다는 데 묘가 있다고 보았다(金忠烈, 「花郎五戒의 思想背景考」, 『亞細亞研究』 14-4, 1971, 208~209쪽 참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화랑도에 속한 승려들은 적어도 육두품 이상은 되었다고 믿어진다. 그것은 적어도 그들이 화랑도내에서 문자 교육을 담당하였다고 할 경우 어린 시절부터 익힌 한자가 어느 정도는 익숙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불경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낭도들을 상대로 한 문자 교육이 쉽사리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물론 문자 교육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선진 정보들을 전해 주었을 가능성도 높다. 승려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선진 정보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광이나 자장의 경우를 눈여겨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화랑도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매우 선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두 사람은 중국에 유학하고 귀국을 하자 왕실에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원광은 진평왕을 위해 乞師表를 작성하였고 자장의 경우 선덕왕을 위해 황룡사구층목탑의 창건을 주도하였다. 어쨌든 이들의 경우 신분이 진골이었으며 그들이 신라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높았던 것이다. 귀산과 추향이 원광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자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중고기에 중국에 유학한 승려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신라로 돌아와 활동한 승려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화랑들은 이러한 승려들을 구성원으로 모신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보면 화랑도의 무리가 승려들을 필요로 하였던 이유를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승려들은 불교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중국 유학을 통하여 배운 의학 지식 등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라를 떠나보지 못했던 일반 민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기층 민중들이 되는 낭도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승려의 입장에서 화랑도에 관심을 보인 이유도 함께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한 측면에서만 승려낭도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입장에서 승려낭도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진흥왕이 승려의 출가를 허용한 것은 불교를 널리 알리고자 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을 통한 왕권의 강화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특히 진흥왕이 스스로를 전문성왕이라 하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금륜과 사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도 그러하다. 그런데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진흥왕이 출가를 허용했다고 해서 불교가 일반 민중들과 곧바로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다. 신라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하게 된 것은 적어도 신라 중대 이후이고 원효를 통해 불교가 널리 전파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신라 중고기에 승려들이 화랑도에 들어가서 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불교를 일반 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진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승려들 가운데는 젊은이의 무리인 화랑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화랑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대체로 도교와 연결되어 있었고 젊은이들도 그러한 도교적인 의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려들이 직접 젊은이들의 단체인 화랑도속에 들어가게 되자 낭도들 사이에서 도교보다는 점차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드러냈으며 점차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승려들은 불교의 새로운 사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하는 점이다. 그렇지만 승려들의 노력이 하루 아침에 결과를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 D. 그때 국선 瞿曇公이 일찍이 그 적선촌 들에 가서 사냥을 했다. 어느 날 혜숙이 길가에 나가 말고삐를 잡고 청했다. 小僧도 모시고 따라가

렵니다. 괜찮겠습니까?” 공은 이를 허락했다. 이에 이리저리 뛰고 달리며 옷을 벗어 제치고 서로 앞을 다투니 공이 기빠했다. 앉아 쉬고 나서, 고기를 굽고 삶아 서로 먹기를 권하니 혜숙도 또한 같이 먹으며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었다. 이윽고 혜숙이 공의 앞에 나아가 말했다. “맛있는 고기가 여기 있는데 좀더 드리려고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공은 말했다. “좋다.” 혜숙은 사람을 물리치고 제 다리의 살을 베어 소반에 담아 올리니 옷에 붉은 피가 줄줄 흘렀다. 공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째서 이러느냐?”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은 인지라 능히 자기를 미루어 동물에까지 미치리라 하여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의 좋아하는 것을 미루어보건대, 오직 죽이는 것만을 몹시 즐기어 짐승을 죽임으로써 자기만 기를 뿐이니 이것이 어찌 仁人君子가 할 일이겠습니까? 저희들의 무리는 아닙니다.” 마침내 옷을 떨치고 가버렸다. 공은 크게 부끄러워 그가 먹은 것을 보니, 쟁반 안에 고기 살점이 그대로 있었다(『三國遺事』 권 4, 義解 第5 二惠同塵)

위의 기록은 승려 혜숙이 화랑도에서 물러난 이후 적선촌에 은거하고 있었을 때 구참공이 낭도를 이끌고 사냥을 하러 그곳에 이르자 그 무리 속에 들어가 같이 사냥을 하고 고기를 구워 구참공에게 대접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보아 이미 둘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고 파악된다. 아마도 혜숙이 화랑도의 무리속에서 활동할 때 구참공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구참공이 화랑이 되어 낭도를 이끌고 사냥에 열중하자 혜숙은 살생에 대한 깨우침을 주고자 직접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에 대해서 몸소 직접적으로 가르쳐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승려 혜숙이 승려낭도로 활동하면서 불교의 교리에 대한 것을 화랑과 낭도들에게 전했다고 하였더라도 그것이 쉽사리 낭도들에게 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승려들이 화랑도의 일원인 낭도가 되어 여러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러운 불교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불교가 점점 더 민간인들 사이에 퍼져 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화랑도는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하게 되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 신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승려와 화랑도와의 관계는 이렇게 지속되었던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승려가 낭도들을 왕실에 추천하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승려 낭도로서의 역할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화랑과 낭도를 한곳에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화랑도가 하나의 이익단체적인 성격을 지닌 만큼 그러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승려가 화랑도를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VI. 맺음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 화랑도와 승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즉 화랑도내에서 승려의 역할은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를 선발하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업적에 대하여 과연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화랑도와 승려와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몇 가지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화랑도와 관련된 승려들의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기왕의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였다. 먼저 화랑도가 만들어지자 승려들이 자발적으로 화랑도에 속하였는데 그 이유는 불교와 그 신앙을 널리 퍼

뜨리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직접 가르치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함으로써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고, 그것이 결국을 신라 사회에 불교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승려들이 낭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는 승려들이 화랑도에 대하여 주목한 아주 중요한 의도였다고 보아진다.

그렇지만 중고기 말부터 도리어 화랑들이 당시 명망 높은 승려들을 모셔와 낭도들 교육에 힘을 쏟았다. 특히 승려들 가운데서 중국에 유학하였거나 혹은 학문적 지식이 높은 이들을 초빙하였는데 이는 그 무리를 이끄는 화랑이 다른 무리의 화랑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신문왕대 화랑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꾸준히 지속되었다.

효소왕대 화랑도가 새롭게 부활하면서 외형적으로는 화랑도의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승려들도 당연히 화랑도내에서 활동하였다. 그렇지만 중대 말부터 화랑도에서 승려들이 점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더 이상 승려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지식의 전수와 관련하여 승려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국학의 발달이 그러한 결과를 불러왔던 것이다. 또한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는 치열한 왕위쟁탈전에 화랑도가 참여하게 되면서 승려들이 그러한 조직속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참고 문헌

- 金煥泰, 「僧侶郎徒考-花郎道와 佛敎와의 關係 一考察-, 『佛敎學報』 7, 1970
- 김정숙, 「신라 화랑의 생활사 연구」, 『화랑문화의 신연구』, 1995
- 金忠烈, 「花郎五戒의 思想背景考」, 『亞細亞研究』 14-4, 1971
- 金台植, 「方士로서의 김유신-도교교단으로서의 화랑 탐구를 겸하여-, 『新羅史學報』 11, 2007
- 김태식, 「『三國遺事』 竹旨郎條 탈구축을 통한 新羅 花郎과 그 花主」, 『忠北史學』 21, 2008
- 李基白, 「圓光과 그의 思想」, 『文化批評』 3, 1969
- 李基東, 「花郎像『의 변천에 관한 覺書」, 『新羅文化』 5, 1988
- 李基東, 「新羅 花郎徒 연구의 現段階」,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일조각, 1994
-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일조각, 1997
-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 李泳鎬,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4, 1993
- 이종욱, 『화랑』, 휴머니스트, 2003
- 李鍾旭, 「新羅 中古時代의 花郎徒」, 『省谷論叢』 27-4, 1996
- 전기웅, 「新羅 下代의 花郎勢力」, 『新羅文化』 10 · 11합집, 1994
- 정운용, 「新羅 花郎制 成立의 政治史의 意義」, 『화랑문화의 신연구』, 1995
- 曹凡煥, 「新羅末 花郎勢力과 王位繼承-(金)孝宗과 金傅의 활동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57, 1999
- 曹凡煥, 「新羅 中古期 郎徒와 花郎」, 『韓國古代史研究』 52, 2008
- 주보돈, 「新羅 花郎徒 연구의 現況과 課題」, 『啓明史學』 8, 1997

蔡尙植, 「新羅統一期의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1984

Vladimir Tikhnov, 「景文王의 儒·佛·仙 融和政策」, 『아시아문화』 12, 1996

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 1947

〈Abstract〉

The Flower Boys (Hwarangdo) and Buddhist Priests of Silla in Early Korea

Cho, Bumhwan

With a focus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Flower Boys and Buddhist monks in Silla prior to the seventh century,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played by Buddhist monks and its historical meaning from a diachronic and macroscopic perspective. Unlike what is known so far among the scholars of early Korean history, Buddhist priests in Silla society joined the groups of Flower Boys, who were first organized by the state authority. The Sillan Buddhist monks chose to join the Flower Boy groups actively in order to interest the young elites (Flower Boys) more in Buddhism; their efforts; eventually paid off. As time went on, however, the Flower Boys themselves were more eager to invite famed Buddhist monks in order to accelerate their own education and broaden their knowledge. The leaders of the Flower Boys also compet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win more famed priests over to their side.

This trend lasted until King Sinmun (r. 681-692), who abolished the Flower Boy system in the course of his plan for the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While this situation was dramatically revers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oso (r. 692~702), in which the Flower Boys system was restored and Buddhist priests began to be invited again by the Flower Boys, such a reversal did not last for a long time. The reason for the abolishment seems to be related to the new situation in which the Flower Boys matured enough to be high-level intellectuals, and did not need to learn from the Buddhist priests any longer.

On the part of Buddhist priests, they were also no longer interested in teaching Flower Boys because the latter were then deeply involved in the internecine succession struggles on the political stage in the capital city of Silla. For this reason, the relationship between Flower and Buddhist monks in Silla socie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should be reexamined.

key words : the Flower Boys, Buddhist monks, Flower Boy groups, King Sinmun, King Hyoso, internecine succession struggles

접수일자 : 2012년 3월 10일

심사완료 : 2012년 3월 31일

게재확정 : 2012년 4월 4일